



100세시대 청춘을 노래하다

▶ 실버가요제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제3회 위풍당당 전국 실버가요제가 지난 17일 오후 전주 풍남문화광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와 전주매일신문사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권순태 새시대노인회 전북총회장, 양현섭 대회 제전위원장, 김양옥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회장, 오석주 (사)한국효도회 전북지부 부회장, 임수진 전 진안군수 등 내빈 16명과 가요제 참가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본선 참가자들은 총 13명으로 풍남문화광장 무대에서 노래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날 가요제 대상은 부산에서 올라온 김동우씨가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정재우(전주)씨와 소민건(전주)씨, 우수상에 남용순(전안)씨와 정운덕(구미)씨가 차지했다.

가요제 공로 표창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자리에서 김연경씨, 박민주씨, 김정리씨가 각각 전북도의회위원장 표창, 전주시장 표창, 전주시의회의장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김양옥 회장은 "노인의 날을 기념하고 실버세대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코로나 시대에 답답하고 고통스런 생활에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 열었다"고 대회 취지를 설명했다.

/김재훈 기자



대상을 차지한 김동우씨의 열창.



격려사를 하고 있는 (사)새시대노인회 권순태 전북회장(왼쪽)과 환영사를 하고 있는 김양옥 대회 본부장(가운데), 그리고 인사말을 하고 있는 양현섭 제전위원장(오른쪽).



입상한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김양옥 대회 본부장(사진 왼쪽)과 양현섭 제전위원장.



열창을 하고 있는 정재우씨(왼쪽)와 김학성씨(오른쪽).



▶ 초대가수 김미남씨(왼쪽)과 이수정씨(오른쪽)의 열창.



가요제 참가자들의 노래를 듣고 있는 관객들의 모습.



▶ 가요제 공로로 전북도의회 표창장을 받은 김연경씨